

0~2세 영아보육 이용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이미화 선임연구원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이다. 영아기에 대한 공격 투자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영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에 비해 보육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전보다 보육서비스의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일정 기준 없이 시설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영아보육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소모, 영아 최우선의 원칙 간과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함께 야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 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보육 이용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고, 주로 자녀 연령반, 모취업 여부, 가구소득을 비교 변인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영아보육 운영 관련 요구,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요구 등에 따른 영아보육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 후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영유아기는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보육의 질은 영유아 발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영아기 보육에 있어서 교사의 민감성,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의 과정적 질은 직접적으로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보육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집단 크기, 교사의 교육 정도 등과 같은 구

조적 질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갖는다. 영아는 발달특성상 부모에 의한 가정양육이 보편적이나 가정양육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시설보육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가정양육보다 기관 중심의 보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영아보육의 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현재 0세반(87,503명)¹⁾, 1세반(285,412명), 2세반(402,123명) 포함 영아반 보육아 수는 총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이 수행한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함.

1) 2012년 12월 말 기준임. 2013년 6월 기준과 비교하면 양육수당 등 보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0세반 영아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위의 보고서 29쪽 표 II-1-6 참조.

775,038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 보육 통계의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0~2세 영아 전체 872,281명 중 43.1%가 민간어린이집, 41.8%가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고, 단 14.8%만이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어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프로그램 등 보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영아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비교적 열악한 여건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한 영아보육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영아보육 지원의 경우, 부모의 취업상태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긴밀히 연동되어 취업모의 양육 지원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아 가구 누구나에게 보육료 지원이 되면서 가정 내에서 양육되었던 영아들이 시설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부모역할의 강화와 가정 내 양육지원이 시설 지원과 함께 균형 있는 육아지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보육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다는 인식을 낳게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예산 증가와 함께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 영아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상황에서 영아보육 정책을 지원할 실제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영아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을 위해 다양한 입장의 요구를 반영한 영아보육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영아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식과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아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아보육 이용 실태 및 운영 관련 요구

가. 영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1) 어린이집 선택 요인

영아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선택할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인지도·주위의 평판 50.6%, 집과의 근접성 22.6%, 운영주체(국공립 여부 등) 19.8%, 시설 수준 1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 부모는 어린이집이 주위의 평판이 좋고 집에서 가까우며 공인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것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집 이용 시간

평상시에 영아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6시간 초과~8시간 이하 52.0%, 8시간 초과 33.2%, 4시간 초과~6시간 이하 13.3% 순으로 나타나 영아임에도 대부분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시간 이하의 단시간 이용자는 1.5%로 나타났다.

〈표 1〉 영아 자녀의 어린이집 일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 구분 | 4시간 이하 | 4~6시간 | 6~8시간 | 8시간 초과 | 계 | 평균시간 (표준편차) | F/t |
|--------------|--------|-------|-------|--------|------------|----------------|----------|
| 전체 | 1.5 | 13.3 | 52.0 | 33.2 | 100.0(398) | 7.68(1.69) | |
| 자녀 연령반 | | | | | | | |
| 0세반 | 4.5 | 16.7 | 37.9 | 40.9 | 100.0(66) | 7.72(2.09) | |
| 1세반 | 1.3 | 14.2 | 54.3 | 30.2 | 100.0(162) | 7.60(1.64) | 0.32 |
| 2세반 | 0.6 | 11.2 | 55.3 | 32.9 | 100.0(170) | 7.74(1.57) | |
| 모취업여부 | | | | | | | |
| 비취업 | 2.3 | 20.1 | 70.9 | 6.7 | 100.0(134) | 6.73(1.01) | |
| 취업 | 0.8 | 10.1 | 42.9 | 46.2 | 100.0(247) | 8.18(1.73) | 80.24*** |
| 가구소득 | | | | | | | |
| 200만원 미만 | 5.3 | 10.5 | 63.1 | 21.1 | 100.0(19) | 7.14(1.77) | |
| 200~300만원 미만 | 1.4 | 13.9 | 59.7 | 25.0 | 100.0(72) | 7.39(1.48) | |
| 300~400만원 미만 | 1.1 | 12.4 | 62.9 | 23.6 | 100.0(89) | 7.45(1.50) | 3.91** |
| 400만원 이상 | 1.0 | 13.9 | 44.2 | 40.9 | 100.0(208) | 7.96(1.76) | |

** p < .01, *** p < .001

일일 이용시간 평균은 모취업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영아 자녀가 비취업모 영아 자녀보다 평균 1시간 24분 더 어린이집에 머물렀으며, 비취업모 자녀는 6~8시간 이용이 70.9%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초과 이용자는 6.7%로 적게 나타났다. 취업모 자녀는 6~8시간 42.9%, 8시간 초과 46.2%로 전체의 89.1%가 6시간 이상 이용자이고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이용시간도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이 맞벌이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1 참조).

3) 어린이집 이용 이유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취업이 64.6%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양육부담경감 14.1%, 다른 자녀 돌봄

12.1%, 개인시간 활용 4.9%, 혈연양육지원 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자녀의 연령반, 모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0세반 부모는 86.9%가 모취업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1세반과 2세반 부모는 모취업이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하나 56~63%로 0세반 보다 비중이 작고, 상대적으로 양육부담경감, 다른 자녀 돌봄, 개인시간 활용을 위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다. 취업모 가구는 86.9%가 모취업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비취업모 가구는 모취업보다는 양육부담경감 36.1%, 다른 자녀 돌봄 30.6%가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어 이용 사유의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과 400만원 이상 가구는 모취업을 가장 큰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나, 200~400만원 미만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부담경감, 다른 자녀 돌봄을 이유로 어

〈표 2〉 어머니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분 | 모 취업 | 양육 부담 경감 | 다른 자녀를 돌봄 | 개인 시간 활용 | 혈연 양육지원 없음 | 정부 보육료 지원 | 모질병 | 계 |
|--------------|------|----------|-----------|----------|------------|-----------|-----|------------|
| 전체 | 64.6 | 14.1 | 12.1 | 4.9 | 2.6 | 1.2 | 0.6 | 100.0(347) |
| 자녀 연령별 | | | | | | | | |
| 0세반 | 86.9 | 6.6 | 3.3 | 1.6 | 1.6 | 0.0 | 0.0 | 100.0(61) |
| 1세반 | 63.8 | 12.3 | 14.5 | 4.3 | 2.9 | 0.7 | 1.4 | 100.0(138) |
| 2세반 | 56.1 | 18.9 | 13.5 | 6.8 | 2.7 | 2.0 | 0.0 | 100.0(148) |
| 모취업여부 | | | | | | | | |
| 비취업 | 17.6 | 36.1 | 30.6 | 8.3 | 2.8 | 2.8 | 1.9 | 100.0(108) |
| 취업 | 86.9 | 4.1 | 3.2 | 2.7 | 2.7 | 0.5 | 0.0 | 100.0(222) |
| 가구소득 | | | | | | | | |
| 200만원 미만 | 62.5 | 18.8 | 12.5 | 0.0 | 6.3 | 0.0 | 0.0 | 100.0(16) |
| 200~300만원 미만 | 46.6 | 24.1 | 17.2 | 5.2 | 1.7 | 1.7 | 3.4 | 100.0(58) |
| 300~400만원 미만 | 50.0 | 21.8 | 19.2 | 6.4 | 1.3 | 1.3 | 0.0 | 100.0(78) |
| 400만원 이상 | 77.0 | 7.0 | 7.5 | 4.3 | 3.2 | 1.1 | 0.0 | 100.0(187) |

주: 빈도가 낮은 셀이 있어 카이제곱 분석이 불가함.

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래와의 경험을 위해서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서 39.3%, 언어·인지발달을 위해서 10.3%, 신체발달을 위해서 3.3% 순으로 나타났다.

나. 영아보육 운영 관련 요구사항

1)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적절성 요구

영아 부모의 교사 대 영아 수에 대한 인식은 ‘많다’는 응답이 46~52%, ‘적합하다’ 26~37%, ‘적다’의 응답이 16~22% 순으로 나타나 영아 부모는 현행 교사 대 영아 비율이 높은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교직원의 교사 대 영아 비율 감소 요구(표 4 참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영아반의 학부모들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 현

〈표 3〉 교사 인력 대비 현재 영아 수의 적합도 및 적정 영아수¹⁾

단위: %, %(명), 평균(표준편차)

| 구분 | 매우 적다 | 약간 적다 | 적합하다 | 약간 많다 | 매우 많다 | 계 | 적정 영아수 ²⁾ |
|------|-------|-------|------|-------|-------|------------|----------------------|
| 전체 | 1.8 | 17.3 | 31.5 | 41.6 | 7.8 | 100.0(400) | |
| 담당연령 | | | | | | | |
| 0세반 | 3.0 | 13.4 | 37.3 | 41.8 | 4.5 | 100.0(67) | 2.17(0.62) |
| 1세반 | 3.1 | 19.0 | 26.4 | 39.3 | 12.3 | 100.0(163) | 3.47(0.94) |
| 2세반 | 0.0 | 17.1 | 34.1 | 44.1 | 4.7 | 100.0(170) | 5.00(1.22) |

주: 1) 빈도가 낮은 셀이 있어 카이제곱 분석이 불가함.

2)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교사 1인의 적정 보육 영아 수에 대해 전체 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였음.

<표 4> 교사 인력 대비 영아 수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 의향

단위: %, %(명)

| 구분 | 예 | 아니오 | 계 | $\chi^2(df)$ |
|--------------|------|------|------------|--------------|
| 전체 | 66.4 | 33.6 | 100.0(393) | |
| 자녀 연령반 | | | | |
| 0세반 | 65.7 | 34.3 | 100.0(67) | 0.06(2) |
| 1세반 | 66.0 | 34.0 | 100.0(162) | |
| 2세반 | 67.1 | 32.9 | 100.0(164) | |
| 모취업 여부 | | | | |
| 비취업 | 60.3 | 39.7 | 100.0(131) | 4.82(1)* |
| 취업 | 71.4 | 28.6 | 100.0(245) | |
| 가구소득 | | | | |
| 200만원 미만 | 31.6 | 68.4 | 100.0(19) | 39.75(3)*** |
| 200~300만원 미만 | 45.7 | 54.3 | 100.0(70) | |
| 300~400만원 미만 | 63.2 | 36.8 | 100.0(87) | |
| 400만원 이상 | 79.2 | 20.8 | 100.0(207) | |

* $p < .01$, *** $p < .001$

행 교사 대 영아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66.4%)였고, 특히 취업모일수록,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 의향이 높아져 최대 47.6%의 차이가 있었다.

2) 보육실 면적에 대한 적절성 요구

영아 부모의 영아 수 대비 보육실 면적에 대한 견해는 ‘약간 작다’ 이하의 응답이 모든 연령반에서 공통적으로 63~69%로 가장 높았고 적합하다 27~35%, ‘약간 크다’ 이상의 응답은 5%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원 이 보육실 면적 증가를 33~37% 요구한 것에 비해 27%이상 높은 수준이다.²⁾

3) 영아 부모가 선호하는 영아반 교사 특성

영아반 교사 선정 시 선호하는 교사의 특성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가 95.5%로 나타나 대부분의 영아 부모가 교사의 다른 특성보다 상호작용을 가장 중시함을 나타냈다. 이는 교직원 대상 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타나 영아반 교사로 선호되

는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다.³⁾

4)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들어본 적 있음 49.1%, 잘 모름 25.7%, 잘 알고 있음 25.2%로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수가 약 74%로 나타나 많은 수의 부모에게 표준보육과정이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견해는 자녀 연령반, 모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이미화 외(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7.

3) 이미화 외(2013). 위의 책, p. 98.

3. 영아보육정책 만족도 및 영향력

가. 영아 부모의 보육정책 인식 및 만족도

0~2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 어린이집 이용 영아 부모의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가지 정책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을 기준으로 0~2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 지원 정책(90.3%),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81.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51.9%) 순으로 나타났고, 정책 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0~2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 지원 정책(57.6%),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39.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32.1%)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6, 표 7 참조).

0~2세 보육료 전계층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한

영아 부모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이 90.3%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정책 만족도는 조금만족 25.6%, 매우 만족 57.6%로 전체의 83.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반과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정책 인지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 정책은 잘 알고 있음이 81.5%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 만족도는 조금만족 40.8%, 매우 만족 39.5%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는 자녀의 연령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세반 부모의 정책 불만족 비율이 26.9%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0세반 부모의 만족도가 87.5%로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표 5〉 영아 부모의 보육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0~2세 보육료 지원

단위: %, %(명)

| 구분 | 정책 인지도 | | | | $\chi^2(df)$ | 정책 만족도 | | | | $\chi^2(df)$ | 계 |
|--------------|--------|-------|--------|--------|--------------|--------|--------|-------|-------|--------------|---|
| | 잘 모름 | 들어 봤음 | 잘알고 있음 | | |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 조금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0.5 | 9.2 | 90.3 | | 3.6 | 13.2 | 25.6 | 57.6 | | 100.0(387) | |
| 자녀 연령반 | | | | | | | | | | | |
| 0세반 | 0.0 | 9.4 | 90.6 | | 1.5 | 4.5 | 28.4 | 65.7 | | 100.0(67) | |
| 1세반 | 0.6 | 7.7 | 91.6 | 1.10 | 3.2 | 15.9 | 24.8 | 56.1 | 7.68 | 100.0(157) | |
| 2세반 | 0.6 | 10.4 | 89.0 | | 4.9 | 14.1 | 25.2 | 55.8 | | 100.0(163) | |
| 모취업여부 | | | | | | | | | | | |
| 비취업 | 0.8 | 8.1 | 91.1 | | 5.3 | 13.6 | 25.8 | 55.3 | | 100.0(132) | |
| 취업 | 0.4 | 9.1 | 90.5 | 0.33 | 2.5 | 12.1 | 24.7 | 60.7 | 2.50 | 100.0(239)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0.0 | 11.1 | 88.9 | | 0.0 | 10.5 | 15.8 | 73.7 | | 100.0(19) | |
| 200~300만원 미만 | 1.5 | 16.2 | 82.4 | | 2.9 | 7.1 | 35.7 | 54.3 | | 100.0(70) | |
| 300~400만원 미만 | 0.0 | 1.2 | 98.8 | 12.77* | 3.4 | 11.2 | 24.7 | 60.7 | 9.25 | 100.0(89) | |
| 400만원 이상 | 0.5 | 8.8 | 90.7 | | 4.0 | 15.6 | 23.1 | 57.3 | | 100.0(199) | |

* $p < .05$

〈표 6〉 영아 부모의 보육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양육수당

단위: %, %(명)

| 구분 | 정책 인지도 | | | $\chi^2(df)$ | 정책 만족도 | | | | $\chi^2(df)$ | 계 |
|--------------|--------|-------|---------|--------------|--------|--------|-------|-------|--------------|------------|
| | 잘 모름 | 들어 봤음 | 잘 알고 있음 | |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 조금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2.1 | 16.4 | 81.5 | | 3.5 | 16.2 | 40.8 | 39.5 | | 100.0(384) |
| 자녀 연령반 | | | | | | | | | | |
| 0세반 | 3.1 | 16.9 | 80.0 | | 0.0 | 12.5 | 43.7 | 43.8 | | 100.0(65) |
| 1세반 | 2.6 | 11.6 | 85.8 | - | 5.1 | 21.8 | 34.0 | 39.1 | 12.10* | 100.0(155) |
| 2세반 | 1.2 | 20.7 | 78.0 | | 3.1 | 12.3 | 46.3 | 38.3 | | 100.0(164) |
| 모취업여부 | | | | | | | | | | |
| 비취업 | 0.8 | 10.4 | 88.8 | | 2.3 | 18.9 | 39.4 | 39.4 | | 100.0(125) |
| 취업 | 2.9 | 18.9 | 78.2 | 6.53 | 3.9 | 13.2 | 41.9 | 41.0 | 2.61 | 100.0(243) |
| 가구소득 |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0.0 | 16.7 | 83.3 | | 0.0 | 10.5 | 31.6 | 57.9 | | 100.0(18) |
| 200~300만원 미만 | 2.9 | 14.5 | 82.6 | | 1.5 | 15.9 | 44.9 | 37.7 | | 100.0(69) |
| 300~400만원 미만 | 1.2 | 7.2 | 91.6 | - | 3.4 | 18.2 | 37.5 | 40.9 | - | 100.0(83) |
| 400만원 이상 | 2.4 | 20.0 | 77.6 | | 4.1 | 14.8 | 42.8 | 38.3 | | 100.0(205) |

주: 부표 중 빈도가 낮은 셀이 있어 일부 카이제곱 분석이 불가하였음.
* $p < .05$

〈표 7〉을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 52.9%, ‘들어 봤음’ 42.5%로 전체의 94.4%가 인식하고 있다. 만족도는 ‘조금 만족’ 48.8%, ‘매우 만족’ 32.1%로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 80.9%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는 모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인지도가 높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인지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영아 부모의 보육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단위: %, %(명)

| 구분 | 정책 인지도 | | | $\chi^2(df)$ | 정책 만족도 | | | | $\chi^2(df)$ | 계 |
|--------------|--------|-------|---------|--------------|--------|--------|-------|-------|--------------|------------|
| | 잘 모름 | 들어 봤음 | 잘 알고 있음 | | 매우 불만족 | 조금 불만족 | 조금 만족 | 매우 만족 | | |
| 전체 | 5.6 | 42.5 | 51.9 | | 2.7 | 16.4 | 48.8 | 32.1 | | 100.0(393) |
| 모취업여부 | | | | | | | | | | |
| 비취업 | 1.5 | 45.0 | 53.4 | | 5.5 | 20.5 | 40.9 | 33.1 | | 100.0(131) |
| 취업 | 7.8 | 40.4 | 51.8 | 6.41* | 1.3 | 14.0 | 52.0 | 32.8 | 9.32* | 100.0(245) |
| 가구소득 | | | | | | | | | | |
| 200만원 미만 | 0.0 | 38.9 | 61.1 | | 0.0 | 5.3 | 36.8 | 57.9 | | 100.0(18) |
| 200~300만원 미만 | 5.6 | 54.9 | 39.4 | | 0.0 | 14.9 | 47.8 | 37.3 | | 100.0(71) |
| 300~400만원 미만 | 6.9 | 29.9 | 63.2 | 11.76 | 4.8 | 14.5 | 49.4 | 31.3 | 12.09 | 100.0(87) |
| 400만원 이상 | 5.3 | 43.0 | 51.7 | | 3.1 | 18.1 | 50.8 | 28.0 | | 100.0(207) |

* $p < .05$

나. 보육료 지원정책이 영아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미친 영향

정부의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30.1%, 많은 영향 31.3%로 전체의 61.4%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녀 연령과 모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의 영향 받은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0세반 부모 중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경우가 42.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1세반 부모는 31.9%, 2세반 부모는 26.5%로 나타나 자녀 연령이 어린 부모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모는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율

이 32.2%로 비취업모(14.9%)에 비해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요구

가.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의 연계

어린이집에서 영아 부모와의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현황 및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방법 안내, 보육·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외 나머지 항목도 94%이상 제공되고 있다. 부모의 참여도는 운영위원회 57.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이상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 만족하고 있으며, 보육·교육계획표 제공(90.4%), 일일 연락장 제공(90.1%)이 특히 만족

〈표 8〉 보육료 지원 정책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미친 영향

단위: %, %(명)

| 구분 | 전혀 아님 | 아닌 편임 | 보통 | 어느 정도 | 많은 영향 | 계 | $\chi^2(df)$ |
|--------------|-------|-------|------|-------|-------|------------|--------------|
| 전체 | 13.3 | 12.3 | 13.0 | 30.1 | 31.3 | 100.0(399) | |
| 자녀 연령반 | | | | | | | |
| 0세반 | 13.6 | 9.1 | 16.7 | 18.2 | 42.4 | 100.0(66) | 23.98(8)** |
| 1세반 | 12.3 | 8.0 | 8.6 | 39.2 | 31.9 | 100.0(163) | |
| 2세반 | 14.1 | 17.6 | 15.9 | 25.9 | 26.5 | 100.0(170) | |
| 모취업여부 | | | | | | | |
| 비취업 | 8.2 | 6.7 | 20.9 | 35.1 | 29.1 | 100.0(134) | 21.93(4)*** |
| 취업 | 16.9 | 15.3 | 8.6 | 28.2 | 31.0 | 100.0(248) | |
| 가구소득 | | | | | | | |
| 200만원 미만 | 5.3 | 0.0 | 10.5 | 36.8 | 47.4 | 100.0(19) | 16.48(12) |
| 200~300만원 미만 | 8.3 | 8.3 | 16.7 | 37.5 | 29.2 | 100.0(72) | |
| 300~400만원 미만 | 10.1 | 12.4 | 15.7 | 30.3 | 31.5 | 100.0(89) | |
| 400만원 이상 | 17.7 | 14.8 | 10.5 | 27.3 | 29.7 | 100.0(209) | |

** $p < .01$, *** $p < .001$

〈표 9〉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의 연계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구분 | 제공됨 | 제공안됨 | 참여함 | 참여안함 | 불만족 | 보통 | 만족 |
|-----------------|-------|------|------|------|-----|------|------|
| 어린이집 이용방법 안내 | 100.0 | 0.0 | 97.2 | 2.8 | 0.0 | 19.5 | 80.5 |
|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94.0 | 6.0 | 57.4 | 42.6 | 0.0 | 14.9 | 85.1 |
| 보육·교육계획표 | 100.0 | 0.0 | 83.1 | 16.9 | 0.0 | 9.6 | 90.4 |
| 급·간식 식단 | 100.0 | 0.0 | 80.9 | 19.1 | 0.0 | 11.3 | 88.7 |
| 가정통신문 및 부모교육 자료 | 99.7 | 0.3 | 86.7 | 13.3 | 0.0 | 13.4 | 86.6 |
| 자녀 발달평가 결과지 | 94.3 | 5.7 | 84.8 | 15.2 | 0.6 | 14.4 | 85.1 |
| 일일 연락장 | 99.7 | 0.3 | 97.6 | 2.4 | 1.3 | 8.6 | 90.1 |
| 부모지원프로그램 | 99.5 | 0.5 | 93.3 | 6.7 | 0.7 | 16.7 | 82.6 |

〈표 10〉 어린이집 이용 영아 부모가 해야 할 일 (1순위)

단위: %(명), %

| 구분 | 부모 | 원장 | 교사 | 전체 |
|-----------------------|------------|-------------|------------|--------------|
| 전체 | 100.0(399) | 100.0(269) | 100.0(420) | 100.0(1,088) |
| 영아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 전달 | 42.4 | 45.0 | 40.7 | 42.4 |
| 영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동일한 지도 | 18.5 | 29.4 | 32.1 | 26.5 |
| 이상 징후 시 병원진찰/투약의뢰서 작성 | 31.6 | 17.8 | 16.9 | 22.5 |
| 등원 전 영아의 세수 및 양치 | 7.5 | 7.8 | 10.2 | 8.6 |
| $\chi^2(df)$ | | 41.20(6)*** | | |

*** $p < .001$

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어린이 집 이용방법 안내(80.5%)였다(표 9 참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1 순위는 ‘영아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전체의 42.4%로 가장 높았고, 영아에 대한 어린이 집과 동일한 지도 26.5%, 이상 징후 시 병원진찰 및 투약의뢰서 작성 22.5%, 등원 전 영아 세면 8.6%로 나타났다.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응답자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부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이상 징후 시 병원진찰/투약의뢰서 작성을 중요시 하는 비율이 높았고(31.6%), 교직원들은 전체

와 비슷하게 ‘영아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 전달’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10 참조).

가정과 어린이집이 갖는 영아 양육의 책임이 총 100%라 할 때, 가정의 양육 책임을 살펴보았다. 영아 양육 책임에서 가정의 책임이 평균 72%의 책임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 의견은 자녀 연령반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소득이 높은

〈표 11〉 어린이집과 가정의 영아 양육 책임 총 100% 중 가정의 양육 책임

단위: %

| 가구소득 | 평균(표준편차) | F |
|--------------|--------------|-------|
| 전체 | 72.01(13.64) | |
| 200만원 미만 | 64.74(12.64) | 3.44* |
| 200~300만원 미만 | 69.03(12.83) | |
| 300~400만원 미만 | 72.96(14.01) | |
| 400만원 이상 | 72.91(13.57) | |

* $p < .05$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정의 양육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나. 영아 부모의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어떤 주제의 교육을 원하는지 영아부모의 의견은 영아 발달 자극 놀이법(39.8%), 월령별 영아 발달 단계 이해(34.6%), 영아의 건강·안전·영양·위생 관리 방법(25.8%),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 지도(4.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영아 부모의 75.9%가 찬성하고 있어 부모교육 의무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 의무화를 찬성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표 1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1.6%), 부모교육은 자율적 영역에 해당됨(42.1%),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1%)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은 취업모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를 위한 방법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교육은 자율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부모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집합교육 41.0%, 사이버 교육 39.1%, 대중 매체 활용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0세반 부모는 1세반과 2세반 부모에 비해 사이버 교육과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대중매체는 선호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모비취업 가구가 모취업 가구보다 집합교육을 더 선호하며, 취업모 가구는 사이버교육을 가장 선호하였다. 월 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보다 선호되었으나, 4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대중매체 활용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부모교육 의무화 반대 이유

단위: %

| 구분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부모교육은 자율적 영역에 해당 |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기타 | 계 |
|--------------|-------------|------------------|-------------------|-----|-----------|
| 전체 | 51.6 | 42.1 | 2.1 | 4.2 | 100.0(95) |
| 자녀 연령반 | | | | | |
| 0세반 | 64.3 | 28.6 | 0.0 | 7.1 | 100.0(14) |
| 1세반 | 51.4 | 45.9 | 2.7 | 0.0 | 100.0(37) |
| 2세반 | 47.7 | 43.2 | 2.3 | 6.8 | 100.0(44) |
| 모취업 여부 | | | | | |
| 비취업 | 40.0 | 56.7 | 0.0 | 3.3 | 100.0(30) |
| 취업 | 55.9 | 37.3 | 3.4 | 3.4 | 100.0(59) |
| 가구소득 | | | | | |
| 200만원 미만 | 85.7 | 14.3 | 0.0 | 0.0 | 100.0(7) |
| 200~300만원 미만 | 64.3 | 35.7 | 0.0 | 0.0 | 100.0(14) |
| 300~400만원 미만 | 28.6 | 61.9 | 4.8 | 4.8 | 100.0(21) |
| 400만원 이상 | 52.0 | 40.0 | 2.0 | 6.0 | 100.0(50) |

주: 빈도가 낮은 셀이 있어 카이제곱 분석이 불가함.

다. 영아 부모의 육아 관련 사회적 지원

영아 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육아 관련 정보 및 지원을 이용한 경험을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5.4%로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고, 어린이도서관 45.3%, 사회복지관 및 주민센터 32.0%, 영유아플라자 31.6%, 장난감도서관 27.0%, 건강가정지원센터 11.2%로 나타났다. 육아정보 이용 경험은 인터넷 94.7%, 지인/친인척 93.7%, 대중매체 및 육아잡지 89.2%로 나타났다. 2세반 부모의 어린이도서관 이용 경험이 다른 연령보다 두드러진다(51.0%).

영아 부모에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육아 관련 기관 및 정보자원은 1순위로 인터넷이 42.9%로 가장 높았고, 친인척 및 지인 25.3%, 대중매체 및 육아잡지 13.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

접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대체로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1%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라.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부모의 인식

〈표 14〉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91.5%가 알고 있으며, 58.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의 연령반이나 모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에게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아이사랑/안심보육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46.4%가 알고 있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보다는 인식률이 현저

〈표 13〉 육아 관련 기관 및 정보자원 이용 경험

단위: %

| 자녀 연령반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 건강가정 지원센터 | 장난감 도서관 | 어린이 도서관 | 영유아 플라자 | 대중매체, 육아잡지 | 친인척, 지인, 친구 | 인터넷 |
|--------|-----------|-------------|-----------|---------|---------|---------|------------|-------------|------|
| 전체 | 45.4 | 32.0 | 11.2 | 27.0 | 45.3 | 31.6 | 89.2 | 93.7 | 94.7 |
| 0세반 | 45.1 | 36.4 | 19.0 | 25.6 | 33.3 | 32.5 | 87.9 | 96.4 | 95.1 |
| 1세반 | 41.1 | 34.0 | 7.5 | 29.2 | 44.6 | 32.7 | 90.8 | 93.2 | 93.2 |
| 2세반 | 49.6 | 28.0 | 11.2 | 25.3 | 51.0 | 30.2 | 88.1 | 93.1 | 96.0 |

주: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의 비율을 제시함.

〈표 14〉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개선 필요

단위: %, %(명)

| 가구소득 | 알고있음 | 모름 | 계 | $\chi^2(df)$ | 개선 필요함 | 개선 필요없음 | 계 | $\chi^2(df)$ |
|--------------|------|------|------------|--------------|--------|---------|------------|--------------|
| 전체 | 91.5 | 8.5 | 100.0(400) | | 58.6 | 41.4 | 100.0(350) | |
| 200만원 미만 | 94.7 | 5.3 | 100.0(19) | 3.89(3) | 31.3 | 68.8 | 100.0(16) | 17.06(3)*** |
| 200~300만원 미만 | 86.1 | 13.9 | 100.0(72) | | 44.4 | 55.6 | 100.0(63) | |
| 300~400만원 미만 | 91.0 | 9.0 | 100.0(89) | | 56.0 | 44.0 | 100.0(75) | |
| 400만원 이상 | 93.3 | 6.7 | 100.0(210) | | 67.9 | 32.1 | 100.0(187) | |

주: 〈표 7〉에서는 정책만족도와 함께 조사하여 '알고 있다'는 비율이 94.4%로 제시되었으나 이 수치는 유효 사례수 차이로 인한 결과임.

*** $p < .001$

〈표 15〉 부모 모니터링단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개선 필요

단위: %, %(명)

| 가구소득 | 알고있음 | 모름 | 계 | $\chi^2(df)$ | 개선 필요함 | 개선 필요없음 | 계 | $\chi^2(df)$ |
|--------------|------|------|------------|--------------|--------|---------|------------|--------------|
| 전체 | 46.4 | 53.6 | 100.0(399) | | 52.7 | 47.3 | 100.0(313) | |
| 200만원 미만 | 68.4 | 31.6 | 100.0(19) | 7.03(3) | 18.8 | 81.3 | 100.0(16) | 17.43(3)*** |
| 200~300만원 미만 | 47.2 | 52.8 | 100.0(72) | | 45.3 | 54.7 | 100.0(53) | |
| 300~400만원 미만 | 51.7 | 48.3 | 100.0(89) | | 43.3 | 56.7 | 100.0(67) | |
| 400만원 이상 | 41.1 | 58.9 | 100.0(209) | | 62.5 | 37.5 | 100.0(168) | |

*** $p < .001$

히 낮았으며, 개선요구는 52.7%로 나타났다. 부모 모니터링단 또한 다른 어린이집 평가 항목과 비슷하게 가구소득에 따른 개선 요구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부모의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표 15 참조).

5. 결론

가. 부모의 선택 요인 반영한 영아보육 정책의 방향 수립

본 연구에서 영아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시하는 것은 인지도 및 주위평판이 지배적이며, 집과의 근접성, 국공립 등 운영주체를 주로 고려하므로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갖춘 어린이집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은 모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상시이용이 대부분이며 간헐적 이용자가 없고, 평균 7.6시간으로 영아가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 입장에서 어린이집 이용 이유가 모취업을 제외하고 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돌봄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영아보육 실수요 가구와 그 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육의 시간의 이원화, 이용방식의 다양화(일시보육 등) 등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운영체계의 제도적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 실태 조사에서 가구 여건 상 필수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은 모비취업 가구 약 6시간, 취업가구 8시간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아가 부모 인식에 적절한 이용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0~2세 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모는 61%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특히 0세반 부모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0~1세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미루어볼 때 시설보육 지원 시 가정양육 지원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영아보육 내실화를 위한 영아보육 환경 개선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교사

대 영아 비율 감소 요구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감소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0세반에서 교사대 영아 비율 감소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66.4%의 부모가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대 영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단순히 영아의 수만 줄여서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담당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교사가 하루종일 근무하는 직장에서 영아반을 들여다 본다면 동선 확보를 위한 이동 공간을 포함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외놀이터가 없거나 실외에 나갈 기회가 제한적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의 경우 하루종일 실내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실 면적 기준은 집단 크기를 반영하고 보육실 외에 실내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환경, 특히 공간에 따라 영아의 놀이나 행동 특성이 달라지므로 어린이집 규모별 보육실 면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 강화

어린이집과 가정의 영아 양육 책임 100% 중 가정의 책임을 72%로 인식하고 있어 영아 부모들이 영아 양육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부모와 어린이집의 연계에서도 영아의 정보를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 부모가 해야 할 일

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가정과 어린이집이 신뢰있는 영아 양육의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영아 부모와의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린이집 이용방법 안내, 보육·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외 나머지 항목도 94% 이상 제공되고 있다. 부모 참여도는 운영위원회 57.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의 참여도를 보이고, 참여 중인 부모의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보육·교육계획표 제공(90.4%), 일일 연락장 제공(90.1%)이 특히 만족도가 높았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어린이집 이용방법 안내(80.5%) 정도였다.

라. 영아무상보육 대상 부모교육 의무화 도입

영아부모들이 선호하는 부모교육 주제로는 영아 발달 자극 놀이법(39.8%), 월령별 영아 발달 단계 이해(34.6%), 영아의 건강·안전·영양·위생 관리 방법(25.8%),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 지도(4.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면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영아 부모의 75.9%가 찬성하고 있어 부모교육 의무화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교육 의무화를 찬성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51.6%), 부모교육은 자율적 영역에 해당됨(42.1%),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1%)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은 취업모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두드러지며 이들을 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교육은 자율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영아 부모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자를 위한 사전부모교육의 제도화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모교육 지침서를 배포하여 현장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공통의 안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 영아보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본 연구 조사결과, 부모의 육아 관련 기관 중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경험이 가장 많고

(45.4%), 인터넷, 친인척, 대중매체/육아잡지를 통한 육아정보 습득 경험은 89~94%로 높았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정보자원은 인터넷(42.9%)이며, 방문을 요하는 육아 관련 기관들의 활용도는 보육정보센터 7.1% 등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영아 부모가 활용하기 유용한 육아 관련 시설 및 정보자원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양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정내 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영아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이를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그리고 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